

# 현대 승가청규 필요성 ‘공감’ 내용, 법제화 방안 의견분분

교육원 교육위·중앙종회 교육분과 ‘현대사회 승가청규’ 세미나

현대사회에 맞는 승가청규가 필요하고 승가교육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만 내용과 방식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월25일 조계종 교육원 교육위원회(위원장 종호스님)와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회(위원장 심우스님)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현대사회 승가청규’ 세미나에서는 청규 내용과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해남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교육아사리)이 ‘현대사회 승가청규는 어떤 내용으로 제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주경스님은 ‘새로운 승가청규, 어떻게 종단에 정착시킬 것인가’에 대해 발제했다.

금강스님은 새로운 청규에 답해야 할 내용에 대해 “폭력, 도둑질, 음행, 도박, 난폭 운전과 같이 현대사회의 문제는 물론 의식주나 현대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생활방식 등을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외출에 따른 육식과 음주, 휴먼 외에 호텔 등 대중숙박업소의 출입, 도구이라는 미명하에 아파트를 소유하는 문제, 인터넷 게임, 주식투자, 자동차 문제나 개인의 자산소유 등도 청규내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규에 금지조항을 세세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많았다. 세부 계목이 오히려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토론자로 나선 영축총

림 통도사 율학승가대학원장 덕문스님은 “소유와 소비문화 등의 예민한 부분과 승가의 부정적인 면을 외부에 내놓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교육아사리 자현스님도 문제를 제기했다. 예컨대 ‘술 먹지 마라’나 ‘인터넷 게임을 하지마라’와 같은 조항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시는 집단이냐’나 ‘얼마나 게임

“새롭게 등장한 생활방식도 다뤄야”  
“금지조항 세세하게 설정하면 안돼”  
“세부내용 교구나 대중에게 맡기자”

을 많이 하는 단체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자현스님은 “오래 전에 ‘도둑질 하지 마라’는 계목이 있지만 아무도 유지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교주의 권위와 부합시키지 않는다면 제2의 ‘자동차 배기량 논란’만 야기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청규를 제정해 법제화 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나뉘었다. 주경스님은 “현대에 맞는 청규를 만들자고 한다면 (선원청규)와 <승

가청규> 내용 중에서 규제성 있는 부분만 발췌하고, 종법령 가운데 승려법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며 “스님들로 하여금 새 청규를 지키게 하려면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 청규의 세부내용은 교구나 대중에게 맡기자고 제안했다. “교구종회나 총림의 임의, 율 전공자에게 맡겨 청규 내용을 정해 청규법으로 만드는 게 좋다”며 “대중공사를 통해 교구에서 문제를 일으킨 스님에게 산문출송이나 소임을 주지 않는 등의 결정을 종단이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성택 교수는 청규 법제화에 의견을 제시했다.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거나 ‘비난’받는 규제와 규율이 청규의 주가 돼서는 안된다”며 “난폭운전, 게임, 도박, 사치, 방종 등은 누구나 해서 안될 일인데 이런 내용을 청규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승가의 위의를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청규를 새로 만든다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가장 바람직한 스님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 계도의 관점에서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종회의원 만당스님도 토론문에서 “청규의 법제화는 자칫 잘못하면 불교와 종단, 승가대중의 신뢰만 추락시키는 부메랑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며 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현경 기자 eonaldo@ibulgyo.com



성현사가 아름다운동행에 승려노후복지기금을 지정 기탁했다. 아래 작은 사진은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

고창 선운사, 네팔 지진구호  
대전 성현사, 승려 노후복지

‘아름다운 동행’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스님)가 지난 6월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3600여만원을 전달했다. 성금 3598만2500원은 선운사 본·말사 스님과 신도들이 지진 피해를 입은 네팔을 돕기 위해 십시일반 뜻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본·말사에서 정성을 모아줘 고맙다”고 화답했다.

대전 성현사(주지 정은스님)는 같은 날 아름다운동행에 승려노후복지기금 1000만원을 지



정 기탁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승려복지사업은 현 집행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대 사업 중 하나이기도 하다”며 “종단이 승려복지를 안정화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은스님은 “좋은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 모자가정지원 ‘위시박스’ 하루 수십 통 문의전화 소원 들어 주기 바쁘다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 진행하고 있는 국내 저소득 모자가정을 돕기 위한 ‘위시박스(Wish Box)’ 캠페인이 순항 중이다. ‘위시박스’ 캠페인은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가정 8~19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사연을 접수받아 후원물품을 전달하는 캠페인이다. 지난해 홀로 삼남매를 키우던 한 여성 독자가 “모자가정을 위해 써달라”며 3000만원을 기부하며 기획됐다. 아름다운동행은 지난 3월부터 ‘착한소원’이 적힌 사연을 접수받아 지금까지 카메라, 자전거, 축구화, 제봉틀, 책가방 등의 후원물품을 지원해왔다.

해금연주가가 꿈인 박가연(19)은 지난 5월의 주인공에 선정돼 한복을 선물 받았다. 박 양은 11년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대회 출전 때마다 오래된 한복을 입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왔다. 박 양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해금을 배우며 많은 위안을 받아왔다”며 “아름다운동행으로부터 선물 받은 한복을 입고 앞으로 대회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에는 경남 김해에 사는 강수민(11)양이 “할머니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사연을 보내와 외식상품권을 후원하기도 했다.

아름다운동행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시박스’ 캠페인을 신청한 개인 및 단체 접수 건은 150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에 사무실에 걸려오는 문의전화만 수십 통이 넘는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스님은 “매월 ‘위시박스’에 사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지만 더 많은 소원을 들어 줄 수 없어 아쉽다”며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캠페인 신청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며 매월 12일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 종무원 역량강화 공 들인다 직무능력 향상 사이버 교육 석좌교수 초청 인문학 특강

조계종 총무원은 종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으로 진행되는 ‘직무능력개발 지원과정’ 사이버 역량교육을 실시한다.

사이버 역량교육은 매월 1일과 16일부터 시작하며 교육 시작 5일 전까지 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수강신청은 한국생산성본부 e-러닝센터 홈페이지(www.e-kpc.or.kr/buddhism)에 가입한 뒤,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된다. 강좌는 △마케팅·홍보 △자기개발·커뮤니케이션·프리젠테이션·세무 등 비즈니스 스킬 △고객대 △엑셀 및 파워포인트 과정 등 경영일

반 교육과정과 ‘하루 10분, 직장인 인문학’ 등 인문학 교육과정 등 다양한 교육으로 개설됐다. 일부 강의의 경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들을 수 있다.

강좌는 기본 1개월 과정으로 1개월 내 수강을 완료해야 한다. 중앙총무기관 및 산하기관 종무원 2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사전에 e-러닝센터 홈페이지와 세피스를 통해 교육을 신청해야 한다. 강좌별 교육비는 개인이 사전 입금해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소감문을 제출하면 교육비를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총무원은 오는 16일 오후4시30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경제로 보는 한국사회’를 주제로 종무원 교육 인문사회 특강을 실시한다. 특강은 김종인 건국대 석좌교수가 강사로 나서 한국사회 경제민주화와 경제의 미래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인문사회 특강은 오는 8월14일 김중태 IT문화원장의 ‘IT혁명과 불교’, 10월13일 광고인 박웅현 씨의 ‘창의력은 어디서 오는가’ 등을 주제로 한 강의로 이어질 예정이다.

엄태규 기자 che11@ibulgyo.com

### 본·말사 주지 인사 (6월24일 종무회의)

|                                                                                                         |                                                                                                            |                                                                                                         |                                                                                                         |                                                                                                         |                                                                                                         |                                                                                                          |                                                                                                         |
|---------------------------------------------------------------------------------------------------------|------------------------------------------------------------------------------------------------------------|---------------------------------------------------------------------------------------------------------|---------------------------------------------------------------------------------------------------------|---------------------------------------------------------------------------------------------------------|---------------------------------------------------------------------------------------------------------|----------------------------------------------------------------------------------------------------------|---------------------------------------------------------------------------------------------------------|
| <br>현범스님<br>서울 보승사 | <br>효공스님<br>경기 광주 명성암 | <br>범정스님<br>부산 용주사 | <br>해영스님<br>이천 은선사 | <br>홍범스님<br>대전 태을암 | <br>정준스님<br>서산 보원사 | <br>원혜스님<br>상주 자광사  | <br>성윤스님<br>진주 연화사 |
| <br>원정스님<br>고성 운흥사 | <br>대범스님<br>창원 무문정사   | <br>승현스님<br>영주 유석사 | <br>형공스님<br>안동 개곡사 | <br>상덕스님<br>제주 월성사 | <br>종선스님<br>제주 월인사 | <br>정원스님<br>동두천 자재암 | <br>심진스님<br>파주 보광사 |

공 고

## 제49차 원로회의

제49차 원로회의를 다음과 같이 소집하오니  
원로회의의 의원 스님들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_ 불기2559(2015)년 7월 8일(수) 오후 2시
- 장 소 \_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
- 안 건 \_ •종현 개정안 인준의 건  
•기타사항
- 문의처 \_ 원로회의의 사무처 (02-2011-1865)

불기2559(2015)년 7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원로회의의 의장 밀 운

##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귀 사찰에 품격있는 소전의식을 위한 연꽃 소전대 작품을 제안합니다. 작품성과 실용성 모두 완벽에 가까운 수제 작품입니다. 디자인특허 및 실용신안특허를 모두 획득한 작품이며 장인의 담과 혼뿐 아니라 예술가의 열정이 담긴 작품입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작품으로 귀 사찰의 기제사나 천도재의 마지막 소전의식을 준비하신다면 사찰의 품격과 신도님들의 품격 또한 높여 귀 사찰의 무궁한 발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연락처 010-9195-1044  
070-7563-3898

●주 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귀인로 82번길 30

불교조각연구원

NAVER 연꽃소전대